



배포일시	2023년 7월 4일	보도일시	2023년 7월 4일(즉시)
사진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쪽수	3쪽(본문2, 붙임1)
담당자	유민상 과장(02-6959-8084/office@kdaxa.org)		

DAXA,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경보제 시행

-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경보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해 7월 4일부터 시행
- 입금량 급등,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정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는 7월 4일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경보제(이하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경보제는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과 조건 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 구체적인 적용 수치 및 경보 예외 사유 등은 거래소별 또는 종목별 거래량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조건 범위 내에서 각 회원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경보 유형	내용	조건 범위
가격 급등락 경보	최근 24시간 동안 가격이 급등 혹은 급락한 경우	50% 이상
거래량 급등 경보	최근 1~10일 동안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100~300% 이상
입금량 급등 경보	최근 1~10일 동안 입금량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100~300% 이상
가격 차이 경보	최근 특정 시간 동안 시세가 CMC*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5%이상
소수 계정 거래 집중 경보	최근 24시간 동안 소수 계정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높은 경우	40~80% 이상

* CMC : CoinMarketCap

해당 시스템은 작년 6월경, 협의체 발족 당시부터 5개 회원사가 함께 준비하고 DAXA 자문위원의 검토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보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운영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경보제는 각 거래소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지는데, 각 경보제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검출될 경우 해당 종목 거래창에 뱃지 형태의 알림을 제공한다. 경보는 최대 24시간 동안 노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며, 구체적인 노출 시간은 각 회원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DAXA 김재진 상임 부회장은 "DAXA 회원사의 경보제는 일반인이 차트나 호가창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없던 정보를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각 회원사의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에 개발 기술과 노력이 더해진 결과"임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용자 정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경보제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끝.

붙임#1

주요 Q&A

Q1. 각 경보제가 거래소에 어떠한 형태로 표출되는지 안내하는 자료는 없는지?

각 거래소의 UI 및 UX와 관련한 내용은 해당 거래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Q2. 각 경보에 해당하는 검출 로직 혹은 거래소별 구체적인 값은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검출 로직 및 적용 값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